

4세기 백제의 영역국가 전환과 왕권 중심 정치체제의 성립

박기범*

-
- I. 머리말
 - II. 方位名 5부의 설치와 병력 동원체계의 변화
 - III. 철기 보급과 小國 질서의 해체
 - IV. 일원적 관등제의 확립과 왕권 중심 정치체제의 성립
 - V. 맺음말
-

【국문초록】

그간 백제 고고학 연구의 진전에 수반하여 4세기 중후반 백제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하였다. 근초고왕대에 영산강 유역을 점령하였다는 기존 문헌사학계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된 것이 대표적 예이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백제가 중앙집권 체제로 전환된 시점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계의 연구 분위기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 기존에 쌓아온 연구 성과들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백제는 근초고왕대 무렵에 방위명 5부를 설치하였다. 방위명 5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설정되었으며, 그 범위는 북으로는 예성강, 동으로는 춘천, 남으로는 차령 이북 지역에 미쳤다. 방위명 5부 설치 과

* 동국대학교 강사

정에서 많은 축성과 사민이 이루어졌고, 이는 백제 중앙의 지배력이 5부 전체에 깊고 고르게 침투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백제의 지배력이 5부에 고루 미치고 있었음은 병력 동원체제의 변화에서 드러난다. 백제는 근초고왕대에 들어와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는데, 3만이라는 수는 당시 백제에 편입되어 있던 거의 모든 가호로부터 1명씩 차출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또한 백제는 철기 생산과 보급을 독점하여 읍락에 대한 기존 국읍의 영향력을 분쇄하는 방식으로 소국 질서를 해체해 나갔다. 이는 소백산맥 일대의 철산지를 직접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백제는 이렇게 읍락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며 개별 읍락을 지방 행정의 단위로 편제해 나갔다. 여기에 더해 철기 보급의 확대는 자연히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유발하였고, 생산력의 증대는 계층분화를 유발하여 읍락 내의 공동체적 사회관계가 해체되어 갔다.

영역국가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정국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왕권 중심 정치체제의 성립을 가져왔다. 좌평은 연맹왕국 시기에 재지세력이 자신의 세력기반을 유지한 채 수여받은 칭호였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영역화 작업이 진행될수록 좌평을 수여받는 계층은 축소되어 갔다. 그 결과 근초고왕-근구수왕대가 되면 오직 진씨만 좌평을 수여받게 되는데, 이 시기 진씨는 내치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등 왕권에 필적하는 위상을 누렸다. 그러나 이러한 위세를 누리던 진씨도 진사왕대에 이르면 일원적 관등제하에 편입되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진사왕이 동진으로부터 백제왕에 책봉되며 백제 왕권의 권위가 한층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주제어 : 백제, 영역국가, 근초고왕, 지방 지배, 좌평, 진사왕

I. 머리말

4세기 중후반 근초고왕대를 기점으로 백제 사회가 중앙집권화되었다는 것은 오랜 기간 학계의 통설이었다. 당시 백제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수립한 증거로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왕위의 부자상속, 서기 편찬, 활발한 정복전쟁의 수행, 불교 수용 등이 거론되어 왔다.¹⁾ 이러한 요소들이 국가체제 정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배체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에 피상적인 서술에 그친 감이 없지 않았다.

이후 80년대 후반부터 백제의 지배체제 내지 정치체제와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백제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이해도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²⁾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백제 지방통치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³⁾ 중앙집권이라는 것은 중앙의 정치 형태에만 국한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지방사회에 대한 중앙의 지배 형태를 아울러 파악해야만 그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연구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통치제도가 성립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4세기 중후반 시기에 대해서는 사료 부족과 연구자들 간의 시각 차이로 말미암아 아직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문헌 연구가 담보 상태를 보이는 사이 고고학 연구는 쏟아지는

1)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I 古代篇, 一潮閣. 율령 또한 중앙집권체제 성립의 중요 지표로 자주 거론되는데, 백제의 경우는 율령의 첫 반포 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아 근초고왕대와의 관련성이 불확실하다.

2)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은 이러한 흐름의 시발점이었다.

3) 金英心,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朴賢淑,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高麗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鎔彬, 2002, 『百濟 地方統治制度 研究』, 서경문화사 등 지방통치제도만을 전문한 연구도 여럿 나왔다.

새로운 자료들에 힘입어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리고 고고학 연구가 깊어질수록 근초고왕대를 바라보는 학계의 시각도 점차 변하여 갔다. 연구자들이 영상강 유역 근초고왕대 영유설에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된 것은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근초고왕대를 중앙집권체제로 보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⁴⁾

근초고왕대에 대해 일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필자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근초고왕대를 기점으로 백제의 지배체제가 어느 정도 중앙집권화되었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일부에서 10년 차이로 즉위하는 근초고왕과 내물마립간 시기의 정치 사회적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⁵⁾ 당시 백제는 신라와 달리 강대한 고구려와 사활을 건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배체제의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단선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응의 산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서 문헌 자료에 대한 재음미를 통해 4세기 백제 중앙집권화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방위명 부 설치 경위, 병력 동원체계 변화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백제가 근초고왕대 무렵에 영역국가⁶⁾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때 영역국가는 다음의 두

4) 홍승우, 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 전덕재, 2012, 「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와 그 변천」, 『百濟文化』 47 ; 이현해, 2014, 「백제 국가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둘러싼 중요 쟁점」,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박물관 ; 정동준, 2018,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5) 이현해, 2014, 앞의 논문, 8쪽.

6) 고대국가, 귀족국가, 영역국가, 집권국가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영역국가로 통일하도록 하겠다.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로 정의한다.⁷⁾ 첫째,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영역 내에 다수의 인구집중지를 가지는 국가이다. 국읍이라 불린 삼한시대의 소국 중심지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지배체제 면에서는 직접지배가 왕실 직할지를 넘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이다. 전면적인 직접지배의 시행은 국가 시스템의 중앙집권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 신규 복속지 등에 한해 간접지배가 병용될 수는 있지만, 5부 등의 핵심 지배 지역에 대해 직접지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⁸⁾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4세기 백제의 중앙 권력이 읍락 단위에까지 깊숙이 미치고 있었음을 각종 문헌자료 및 고고자료 등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4세기 무렵 백제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및 당시 백제 사회가 겪고 있던 질적인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관등제 및 책봉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왕권 중심 정치체제 성립 시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장과 III장에서 검토할 백제 지배체제의 변화가 왕권 중심 정치체제 성립의 동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7) 국가 일반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소국(성읍국가 혹은 도시국가 포함) 및 연맹왕국과의 차별점에 중심을 둔 정의임을 밝혀 둔다.

8) 간접지배란 재지의 수장층을 매개로 국가 권력이 지방에 침투하는 방식을 말하며, 직접지배란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지방 행정, 조세 수취, 군사 징발 등에 직접 관여하는 지배 형태를 말한다.

II. 方位名 5부의 설치와 병력 동원체계의 변화

백제가 4세기 중후반 무렵 연맹왕국에서 영역국가로 전환된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사료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시사하는 정황은 다수 존재한다. 문헌사료 면에서는 우선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方位名 부 설치 기사에 주목해 볼 수 있다.⁹⁾

A-① 溫祚王 31년(13) 春正月 分國內民戶爲南北部

A-② 溫祚王 33년(15) 秋八月 加置東西二部

위 사료 A-①과 ②에 보이는 방위명 부에 대해 王都의 행정구역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¹⁰⁾ 시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부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들¹¹⁾도 있다. 하지만 기록에는 분명히 국내의 民戶를 나누었다고 되어있으므로 그 편제 대상 지역은 백제 전역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방위명 부의 설치 시기가 문제인데, 필자의 경우 후대의 사실이 온조왕기에 소급되어 기록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일정 정도 이상의 국가 영역이 확보되고 중앙집권력이 강화된 뒤에야

9) 백제 部 관련 사료의 전반적인 이해 방향에 대해서는 朴起範, 2009, 「百濟 聯盟王國의 政治構造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고에서는 논지 전개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10) 趙漢弼, 1984, 「初期百濟의 國家的 性格」,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1~42쪽 ; 田祐植, 2011, 「百濟 '王權中心 貴族國家' 政治運營體制 研究」, 國民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5~27쪽.

11) 李宇泰, 1993, 「百濟의 部體制 -新羅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百濟史의 比較研究』,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95~96쪽 ; 陳三範, 1993, 「4-5世紀 百濟의 地方統治體制와 檐魯制」, 延世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5~6쪽 ; 朱甫暎, 2000, 「百濟初期史에서의 戰爭과 貴族의 出現 -部體制를 中心으로-」, 『百濟史上的 戰爭』, 서경문화사, 120쪽.

통치 구역을 나누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즉, 사료 A의 성격을 백제의 영역 확장 과정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A-①과 ②를 전후하여 주목되는 백제본기의 영역 관계 기사로는 아래와 같은 마한 병합과 그 사후 처리 과정에 관한 기사가 있다.¹²⁾

B-① 溫祚王 26년(8) 冬十月 王出師陽言田獵 潛襲馬韓 遂并其國
 邑 唯圓山錦峴二城 固守不下

B-② 溫祚王 27년(9) 夏四月 二城降 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秋七月 築大豆山城

B-③ 溫祚王 36년(18) 秋七月 築湯井城 分大豆城民戶居之 八月
 修葺圓山錦峴二城 築古沙夫里城

사료 B에 보이는 마한의 실체는 目支國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¹³⁾ 청당동유적이 있는 현재의 천안 일대로 보는 것¹⁴⁾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A-①과 ②의 기년이 각각 온조왕 31년과 33년으로 되어있고, 마한 병합이 같은 왕 26·27년의 사실로 되어있으므로, 마한 병합이 이루어진 뒤에야 방위명 부가 설치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제의

12) 사료 B에 보이는 마한 병합 기사에 대해 『日本書紀』神功紀 49년(369) 조에 보이는 백제의 마한 잔여세력 공략 기사와 같은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의 별개 사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목지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익산으로 보는 설이 있어 왔고(丁若鏞, 『疆域考』卷1, 馬韓考), 현대에 들어와서도 金貞培에 의해 다시 제기된 바 있다(金貞培, 1976,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韓國史研究』 13, 17~26쪽). 목지국의 위치에 대한 제설의 정리는 이도학, 1998, 「새로운 摸索을 위한 點檢, 目支國 研究의 現段階」, 『馬韓史研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119~121쪽이 참고된다.

14)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쪽.

마한 병합 시기를 추적하면, 자연스럽게 방위명 부 설치의 상한 시기도 확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백제는 언제 마한을 병합했을까. 먼저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기록을 신빙하는 논자들은 백제가 온조왕대에 차령 이북의 마한 지역을 정복했다고 보고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료의 기년적 신빙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온조왕기의 기사를 그대로 믿었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장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줄 물질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백제본기의 연대를 그대로 믿는 것 보다는 합리적인 사료비판과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 그 시기를 조정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기록 수정론자들은 백제의 차령 이북 진출을 대체로 3세기 중엽 이후로 보고 있다. 그들은 백제의 성장이 뚜렷하게 포착되는 고이왕대 이후에야 이러한 남방 영역 확장이 가능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때 고이왕대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¹⁶⁾ 책계왕대로 보는 견해,¹⁷⁾ 4세기 전반이나 비류왕대로 보는

15)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下) - 「三韓攷」 第3部-」, 『韓國學報』 3, 124~132쪽 ; 李鍾旭, 1976, 「百濟의 國家形成 - 三國史記 百濟本紀를 중심으로-」, 『大丘史學』 11, 38~44쪽 ; 최범호, 2000, 「백제 온조왕대의 部 설치 배경」, 『全北史學』 23, 29~32쪽 ; 박찬규, 2001, 「백제의 마한사회 병합과정 연구」, 『國史館論叢』 95, 8~11쪽 ; 李鎔彬, 2002, 앞의 책, 40~43쪽. 그런데 박찬규의 경우는 같은 논문에서 백제의 아산만 유역 진출을 늦어도 4세기 전반 이전이라 하여 신빙론에서 약간 물러난 듯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박찬규, 2001, 앞의 논문, 23~26쪽).

16) 盧重國, 1990, 「日支國에 대한 一考察」, 『百濟論叢』 2, 82~87쪽 ; 俞元載, 1997, 「百濟의 馬韓 征服과 支配方法」, 『百濟論叢』 6, 14~22쪽 ; 李賢惠, 1997, 「3세기 馬韓과 伯濟國」, 『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3~29쪽 ; 김수태, 1998,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馬韓史 研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197~203쪽. 이 중 盧重國과 俞元載는 246년 이후 체제 정비가 이루어지는 260년 이전으로, 李賢惠는 체제 정비가 이루어진 260년 이후 고이왕 말년 이전으로, 김수태는 체제 정비가 이루어진 시기와 같은 263년경으로 보고 있다.

17) 姜鳳龍, 1997, 「百濟의 馬韓 併吞에 대한 新考察」, 『韓國上古史學報』

견해¹⁸⁾도 있다.

이 중 고이왕대로 보는 논자들은 당시 이루어진 체제 정비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정황상의 추정을 하였다. 하지만 『진서』에 290년까지 마한이 계속 등장한다는 점이 걸린다. 물론 『진서』의 마한을 백제가 주체가 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러한 상황의 원인이 백제에 의한 목지국 병합에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서 전문도기 등 서진 물품이 다량 출토되는 것을 통해 백제가 3세기 후반 대의 교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상황¹⁹⁾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백제의 목지국 병합 시기를 확정하는 작업은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한 정황 추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고자료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목지국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천안 청당동유적의 양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자는 청당동유적의 하한을 3세기 후반까지로 설정하였는데,²⁰⁾ 이후 토기류의 형식 변천 양상을 근거로 4세기 전반까지 내려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²¹⁾ 논자마다 상대편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적의 하한이 대략 4세기를 전후한 시점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²²⁾

26, 144~154쪽.

18)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136~140쪽 ; 金英心, 1997, 앞의 논문, 23~26쪽 ; 文安植, 2003, 「백제의 마한 복속과 지방 지배 방식의 변화」, 『韓國史研究』 120, 36~40쪽. 全榮來는 온조왕 13년조의 웅천을 금강으로 비정하고 그 이북 지역에 대한 진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조기의 마한 멸망 기사를 비류왕대의 사실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일단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19) 권오영, 2001, 「백제국(伯濟國)에서 백제(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 40, 40~45쪽.

20) 咸舜變·金在弘, 1995, 『淸堂洞』Ⅱ, 국립중앙박물관, 154~158쪽.

21) 김성남, 2001, 「中部地方 3~4世紀 古墳群 細部編年」, 『百濟研究』 33, 156쪽.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 백제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를 대략 4세기 전반 무렵쯤으로 보아도 대과는 없을 것이다. 후술하듯이 백제는 목지국을 멸망시키고 대대적인 사민정책을 실시하는데, 청당동유적의 분묘 조영이 4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중단되는 상황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²³⁾

따라서 방위명 부 설치의 상한 시기는 4세기 전반으로 잡을 수 있다. 한편, 그 하한은 근초고왕의 마한 잔여 세력 공략이 이루어지는 369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근초고왕대의 이 작전은 목지국 병합 이후의 사후 처리가 어느 정도 완료된 뒤에야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자면, 근초고왕 20년(365) 무렵을 하한으로 잡는 것도 가능하다. 『삼국사기』 근초고왕기는 2년 조 기사를 제외하면 20년에 이르기까지 기록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방위명 부의 편성을 비롯한 각종 체제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때의 방위명 부는 어느 정도의 지역적 범위를 대상으로 설정되었을까. 연맹왕국 시기의 영향력 범위를 보여주는 아래 『삼국사기』 기사 영역에 목지국의 세력권이 추가된 정도의 지역 범위가 방위명 부의 대상 지역이었을 것이다.

C 濫祚王 13年(B.C. 6)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畫定疆場 北至淇河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22) 成正鏞, 2006, 「中西部地域 原三國時代 土器 樣相」, 『韓國考古學報』 60, 135~137쪽.

23) 한편, 4세기 중후반부터는 인근의 화성리와 용원리 등지에 새로운 분묘군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백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成正鏞, 2000, 「中西部 馬韓地域의 百濟領域化過程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46~147쪽; 朴淳發, 2007, 「墓制의 變遷으로 본 漢城期 百濟의 地方 編制 過程」, 『韓國古代史研究』 48, 175쪽).

일반적으로 위 사료 C의 淇河는 예성강,²⁴⁾ 走壤은 춘천에 비정된다. 熊川의 경우는 목지국이 천안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금강이 아닌 안성천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②와 ③에서 목지국을 멸망시키고 쌓은 대두산성, 탕정성, 고사부리성 등은 각각 아산, 온양, 예산 지역으로 비정된다.²⁵⁾ 따라서 당시 백제 방위명 부의 편제 대상 지역은 북으로는 예성강, 동으로는 춘천, 남으로는 차령 이북의 천안-아산-예산 정도의 선에 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²⁶⁾

그러면 이제 목지국 병합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방위명 부가 설치됐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때 병합한 지역은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남부로 편제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백제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실시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방위명 부의 설치 과정과 성격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백제는 B-②와 ③에서 보듯 목지국 병합 이후 축성 사업과 사민 작업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해체하고 있다. 특히 목지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들의 원주지와는 정반대 방향인 漢山의 북쪽에 주민들을 옮기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목지국 세력을 철저히 해체하려는 의도와 함께, 북방의 말갈

24) 패하의 비정과 관련하여 대동강설, 재령강설, 예성강설, 임진강설 등이 있지만, 예성강에 비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25) 탕정성을 온양 지방으로 보는 데에는 이론이 없으나, 대두산성과 고사부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백제 남방 경계에 축조된 이들 성의 위치가 그리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두산성과 고사부리성을 각각 아산과 예산 지방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千寬宇, 1976, 앞의 논문 ; 李基白, 1978,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百濟研究』 9 ; 俞元載, 1992, 「百濟 湯井城 研究」, 『百濟論叢』 3 ; 俞元載, 1997, 앞의 논문 등 참조. 사비시대에 정읍시 고부면이 고사부리로 불린 것은 지명 이동의 결과라고 본다.

26) 다만, 『삼국사기』에서 다루왕대에 진출했다고 전하는 청주 지역[『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多婁王 36年條 “冬十月 王拓地至娘子谷城 仍遣使新羅請會 不從”]까지도 남부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후술하듯이 백제가 이 지역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나 고구려에 의한 군사적 위협에도 대비하는 이중적 목적을 가진 조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기록에는 비록 남부 지역의 축성에 대한 사실만 남아있지만, 목지국 주민들에 대한 사민과 함께 북부에도 대규모 축성 사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광개토왕에 의한 永樂 6년(396) 백제 정벌²⁷⁾ 당시 고구려가 공취한 백제의 성이 58개나 됐다는 점을 보아도 분명하다. 일부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 성의 대부분은 한강 이북에 있었다고 보인다.²⁸⁾ 그 중에는 백제에 편입된 세력들이 이전부터 사용하던 성을 재사용한 경우도 있겠지만 새롭게 축성한 성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본다. 당시 성이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축조되었는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남·북부에 대한 편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백제는 곧이어 동서 2부를 더 설치하였다. 이 역시 지방세력들에 대한 통제 강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남·북부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서부 지역에도 역시 축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는 따로 안 보이지만, 4부가 설치될 무렵에 그와 구분되는 중앙부의 직접지배 영역도 설정되었을 것이다. 지방세력을 방위에 따라 구분지우는 행위는 당연히 중심세력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5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쨌든 이상의 검토를 통해 방위명 부가 지방에 대한 본격적 영역화 과정에서 출현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27) 「廣開土王碑文」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軍至窠南 攻取壹八城…중략…逼其國城 殘不服義 敢出迎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殘兵歸穴 就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始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 村七百 將殘主弟并大臣十人 旋師還都”(王健群 著/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217~220쪽에 제시된 王健群의 판독문에 의함).

28) 李丙燾, 1976, 「廣開土王의 雄略」,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382쪽.

수 있었다.

그러면 당시 부와 성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성-촌체제를 주장하는 설과²⁹⁾ 부와 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통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설로³⁰⁾ 견해가 나뉘어 있다. 사비시대의 方領과 같은 각 부를 통괄하는 部長 격의 존재가 한성시대에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어느 설이 옳은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위명 부가 지방에 대한 영역화 과정에서 출현한 것이라는 앞의 검토 내용을 상기하면, 부의 구분에 아무런 실제적 기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라에서 상주, 하주와 같은 광역의 주를 설치하고 州行使大等を 파견한 사례를 생각해 보면³¹⁾ 어떤 식으로든 지방관 파견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³²⁾

29) 李道學, 1990, 「漢城 後期の 百濟 王權과 支配體制의 整備」, 『百濟論叢』 2, 302~307쪽 ; 俞元載, 1998, 「百濟의 領域變化와 地方統治」, 『百濟의 地方統治』, 學研文化社, 24~27쪽 ; 金起燮, 1998, 「百濟 前期의 部에 관한 試論」, 『百濟의 地方統治』, 학연문화사, 72~80쪽. 李道學과 金起燮의 경우는 4세기에, 俞元載의 경우에는 고이왕대에 시행되었다고 보았다. 그 성격에 대한 파악에 있어서도 李道學은 군관구적 성격의 정연한 지방 지배 체제로, 金起燮은 왕권과 토착세력이 일종의 타협을 통해 불평등 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중앙의 권력이 지방을 간접지배하는 형태로 파악하는 등 논자에 따라 차이가 크다.

30) 김영심, 2000, 「百濟史에서의 部와 部體制」, 『韓國古代史研究』 17, 215~216쪽 ; 양기석, 2000, 「百濟 初期의 部」, 『韓國古代史研究』 17, 192~194쪽 ; 정동준, 2013,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 117~127쪽. 한편, 강종원은 부-성체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강종원, 2002, 『4세기 백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188~198쪽), 부와 성의 실질적 통속관계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자의 견해에 포함시킬 수 있다.

31) 李仁哲, 1993, 「新羅 中古期の 地方統治體系」,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164~173쪽 ; 姜鳳龍, 1997, 「新羅 中古期の 州郡制와 地方官」, 『慶州史學』 16, 107~121쪽.

32) 한성시대 방위명 5부의 기능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아직 많지만, 일찍이 金哲垓이 지적하였듯이(金哲垓, 1975, 「百濟社會와 그 文化」, 『韓

한편,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재지세력이 불만을 품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³³⁾ 아마도 백제는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한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우대책을 베풀어주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산 수청동, 화성 요리, 용인 마북동 등 원삼국시대의 최상위 묘제가 한성기 후반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위상을 유지하는 지역이 주목된다.³⁴⁾ 이들 지역 일대에서 발견되는 위세품은 재지의 유력자가 백제 사회 내에서 누리고 있던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재지수장으로서의 정치적 지위가 아닌]를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한성시대 위세품과 관련해서는, 백제가 동진제 청자 등의 사역을 통해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갔다고 본 연구³⁵⁾ 이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³⁶⁾ 특히 최근 출토례가 늘고 있는 금동관모에 대한 관심은 상당한 편이다.³⁷⁾ 담보 상태에 있는 한성시대 백제

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60~62쪽)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구획이었다는 점에서 사비시대 5방제의 기원이 된 제도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33) 독산성주의 신라 망명 사건[『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8年條 “秋七月 禿山城主率三百人奔新羅”]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기도 하는데(김영심, 2000, 앞의 논문, 214쪽), 성주로 표기된 인물을 재지세력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 34) 이성준, 2022, 「한성기 지역묘제의 다양성과 백제의 사회통합 방식 연구—우호적 합병의 요인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22, 103~105쪽.
- 35) 權五榮, 1988, 「4세기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東晉青磁의 流入經緯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18, 서울大 國史學科, 23~28쪽.
- 36) 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가 대표적이다.
- 37) 금동관모에 관한 연구사는 강중원, 2017, 「한성후기 백제 대외관계의 변화가 지방통치에 미친 영향」, 『역사와 담론』 81 ; 임영진, 2019, 「삼국시대 마한사회 위세품의 의미와 성격」,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나용재, 2021, 「한성도읍기 백제 금동관모의 성격과 지방통치」, 『한국고대사연구』 104 등 참고.

지방 지배 방식 연구에 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일 것이다. 그러나 금동관모를 왕후제나 담로제 같은 특정한 지방 지배 방식 내지는 간접지배 등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금동관모가 출토된 지역을 보면, 화성[요리고분군]과 같은 도성 인접 지역, 합천[옥전 23호분]이나 일본 구마모토[에다후나야마고분] 같은 백제 세력권 밖의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백제 세력권 밖에서도 출토되는 유물을 가지고 백제 지방 지배 방식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5부 밖의 지역은 논외로 하더라도 화성과 같은 5부 내 지역에 대해 간접지배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백제의 지배력은 기본적으로 5부 전체에 깊숙이 미치고 있었다. 이는 병력 동원체계의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연맹왕국 단계에서 1천 명에 불과했던 백제의 병력 동원수³⁸⁾는 방위명 부 설치 이후 3만 명까지 급증한다.³⁹⁾ 이는 5부 지역에 대한 영역화 작업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이다.

3세기 무렵 소국 단위의 병력 동원 규모는 1천 명 수준이었다.⁴⁰⁾ 그런데 마한 소국의 평균 호수는 2천 호 정도였기 때문에,⁴¹⁾ 1천 명이라는 수는 당시 모든 가호에서 병력을 차출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모든 가호에서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을 경우 상정할 수

38) 朴起範, 2009, 앞의 논문, 20~21쪽. 다만, 이는 국왕 직속 병력 수이다.

39)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6年條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侵高句麗 攻平壤城”. 이때의 전투 상황에 대해 고구려본기도 백제 측 병력 수를 3만으로 명기하고 있다.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 사이에 기록의 구체성이나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전에 의거한 서술일 가능성이 높다. 백제는 이후 근구수왕 3년에도 3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40) 朴起範, 2009, 앞의 논문, 21쪽.

41) 金貞培, 1986, 「三韓社會의 「國」의 解釋問題」,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高麗大學校 出版部, 225쪽.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국읍민들만을 대상으로 병력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초기 국가의 전사계급이 특권층만을 대상으로 설정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중국 춘추시대의 경우에도 鄙邑民을 제외한 國人(士)만을 대상으로 군역을 부과했는데, 이때 各家에서 甲士 1인씩을 차출했다고 한다.⁴²⁾ 이로 미루어 볼 때 삼한 소국의 1천 명이라는 병력 동원 수는 국읍의 모든 가호에서 1명씩 차출⁴³⁾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⁴⁴⁾

이때 1천명이라는 수는 당시 국읍의 호수와도 부합하는 수치이다. 삼한 읍락의 평균 호수가 600~800호 정도로 추산되므로⁴⁵⁾ 국읍의 경우 1천호 가량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읍 1천호, 일반 읍락 400~500호 정도가 평균적인 수치였을 것이다.⁴⁶⁾ 한편, 일반 읍락의 경우에는 철기 보급을 국읍에 의존했으므로⁴⁷⁾ 독자적 무장력을 갖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읍 세력이 독점적 군사 행동을 통해 읍락에 대한 우위를 유지해 나갔던 소국 내의 역학관계를 그려볼 수 있다.⁴⁸⁾

42) 增淵龍夫, 1970, 「春秋戰國時代の社会と国家」, 『岩波講座 世界歴史』 4, 岩波書店, 149쪽.

43) 삼한사회의 세대 구성은 한 쌍의 부부와 미혼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權五榮, 1996, 앞의 논문, 64~77쪽). 따라서 가호당 차출할 수 있는 병력은 1명이 보통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44) 참고로, 사비시대에는 각 方에서 1만 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하였고, 郡에서는 7백~1,200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金周成, 1992,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재편」, 『國史館論叢』 35, 41~45쪽). 보통 기준의 소국 단위가 郡으로 재편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성시대와 사비시대의 병력 동원 능력에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45)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20쪽.

46) 600~800호라는 읍락 평균 호수는 국읍과 읍락의 규모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 결과이다.

47) 權五榮, 1996, 앞의 논문, 108~109쪽.

48) 『삼국지』 부여전의 사례를 인용하여 국읍을 포함한 각 읍락의 거수 및

다음으로, 4세기 당시 백제 5부의 범위에 포함되는 마한 舊소국의 수는 대략 15개 이내였다고 보인다.⁴⁹⁾ 방위명 부 설치 이후에도 기존의 군사동원 방식을 유지하였다면, 1만 5천 명 정도 밖에 징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만 여 개의 규모였다고 전하는 대국의 존재를 감안하더라도 국읍에서만 군사를 차출한다고 하면 큰 차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초고왕대에 들어 병력 동원 수를 3만 명까지 늘릴 수 있었던 배경은 읍락민들까지 병사로 차출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⁵⁰⁾ 소국 평균 호수인 2천에 舊소국 수 15를 곱하면 정확히 3만이 도출되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국읍과 읍락 사이에 존재하던 차등성이 해소되어 가고 있던 상황을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차등성의 해소 과정을 지방에 대한 영역화 작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병력 동원체계의 변화를 통해 4세기 당시 백제 중앙의 영향력이 5부 전체에 깊고 고르게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5부 지역에 대해 백제가 직접지배를 시행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위명 5부의 편성이 이루어지는 근초고왕대에 백제가 영역국가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당시에 왕권 중심 정치체제가 성립했는지의 여부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역국가에의 진입과 왕권 중심 정치체

호민층을 중심으로 군사 조직이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문기, 2007,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의 정치제도와 군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95~296쪽), 부여와 삼한 사회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삼한 사회의 경우 계층분화 정도 및 전쟁의 규모가 고구려부여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49) 千寬宇, 1979,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 『東洋學』 9, 236~239쪽 ; 박순발, 2013,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한성백제박물관, 124~128쪽 참조.

50) 중국의 경우에도 춘추 중기 이후 병력 차출 대상이 鄙民들까지 확대되어 간다(增淵龍夫, 1970, 앞의 논문, 172~175쪽).

제의 성립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신라의 경우를 보면, 부체제가 해체되고 왕권 중심 정치구조가 성립하는 것은 법흥왕대이지만, 그 이전 자비마립간~지증왕대에 걸쳐 전국적 규모의 축성 사업⁵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영역국가 형성과 왕권 중심 정치체제 성립에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Ⅲ. 철기 보급과 小國 질서의 해체

백제가 4세기에 들어 영역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갔음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피복속집단들이 유지하고 있던 소국 단위 질서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때 목지국의 경우는 군사적 정복을 통해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배경 요인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우선 생각해야 할 점은 기존의 소국들이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동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백제에 의한 소국 질서 해체는 기존 소국의 통합에 작용했던 동인을 분쇄시키는 것에 의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영은 경제적 요인과 종교적 요인을 소국이 하나의 단위체로 결집되는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꼽은 바 있다.⁵²⁾ 필자 역시 이러한 견해에 동감하고 있는데, 다만 소국 질서 해체에 있어서는 경제적 결합성을 깨뜨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경제적 요인은 농업 생산의 문제와 철기의 입수보급 문

51) 『三國史記』新羅本紀, 慈悲麻立干 6·11·13·14·17年條, 炤知麻立干 7·8·10·12年條, 智證麻立干 5年條 등 참조.

52) 權五榮, 1996, 앞의 논문, 103~112쪽 및 122~130쪽.

제로 압축할 수 있다. 당시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서는 철기 보급의 확대가 필수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철과 철기의 확보는 여러 읍락들을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묶는 역할을 했다.⁵³⁾ 따라서 각 읍락이 철기 보급을 기존의 국읍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면, 읍락의 국읍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현격히 낮아질 수 있다.

백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철기 등 주요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독점 장악하여 공급하고자 했을 것이다.⁵⁴⁾ 이와 관련하여 백제가 목지국 병합 이후 청주 지역으로 진출하고, 소백산맥 일대에서 신라와 접전을 벌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⁵⁵⁾ 충주 등 소백산맥 일대는 풍부한 철산지였기 때문에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노력한 것은 내륙 교통로의 확보 이외에 철의 확보를 위한 것⁵⁶⁾이기도 했다. 마한 북부 지역을 무력 사용 없이 통제할 것과 달리 이 지역에 대해 군사적 진출을 꾀한 것은 철산지를 백제 중앙에서 직접 장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⁵⁷⁾ 중요 자원에 대한 직접 장

53) 權五榮, 1996, 앞의 논문, 108~109쪽.

54) 철기 외에도 소금과 같은 중요 생필품 또한 국가적 관리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의 소금 교역망 통제에 대해서는 李道學이 이미 검토한 바 있지만(李道學,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一志社, 147~166쪽), 당시의 제염유적 등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 다만, 원주 법천리 4호분에서 민어, 상어, 정어리, 조기, 돛, 준치 등의 생선뼈가 출토되었는데(宋義政·尹炯元, 2000, 『法泉里』 I, 國立中央博物館, 119~120쪽), 이들 중에 민어나 준치같이 우리나라 서·남해에 서식하는 어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들 생선류는 소금 등과 함께 서해에서 생산되어 남한강 수로를 통해 내륙 지방에 공급되었을 것이다.

55) 다루왕에서 고이왕대에 걸쳐 확인되는 백제와 신라의 전투 기사는 백제가 목지국 병합 이후 소백산맥 일대로 진출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교전 상대국이 신라였다고 전하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6) 강중훈, 2000,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15쪽의 주 22).

57) 백제가 목지국에 대해 무력적 정복을 행한 것도 소백산맥 일대 진출의 전초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제에서 충주 지역으로 통하는 루트에는 남한강을 따라 내려가는 길도 있지만, 천안 지역으로 남하해서 청주

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백제에 복속된 세력들의 독자적 운동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백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초고왕대에 谷那鐵山의 존재를 왜에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것을 보아도⁵⁸⁾ 당시 백제가 철산지의 장악을 성공적으로 이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원지역 일대에 산재한 백제 성곽들도 주목된다. 충주 장미산성은 성벽 축조 기법이 백제 산성으로 판명된 반월산성 등의 축조 기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백제 지역의 표식적 유물 중 하나인 조족문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⁵⁹⁾ 백제에서 초축한 성곽임이 거의 분명하다. 이외에도 청주 정북동토성, 진천 대모산성, 증평 추성산성, 충주 탄금대토성 등 백제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성곽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들 성곽은 중원지역이 백제의 직접지배 지역이었음을 시사하는 자료들이다. 또한 청주 신봉동고분군에서 엿보이는 무장집단의 존재도⁶⁰⁾ 백제에서 이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를 거쳐 가는 우회로도 존재한다. 따라서 백제가 후자의 루트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소백산맥 일대의 세력이 목지국과 연결하여 백제에 대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백제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천안 지역에 위치한 목지국 세력부터 먼저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이의 성공을 통해 백제는 소백산맥 일대 세력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 유적이 있는 천안 용원리, 화성리 등의 지역이 천안에서 청주를 잇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成正鏞, 2000, 앞의 논문, 138쪽)은 주목을 요한다.

58) 『日本書紀』卷9, 神功紀 52年條 “秋九月丁卯朔丙子 久氐等從千熊長彥諺之 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 及種種重寶 仍啟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當飲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

59) 車勇杰·李圭根, 2006, 『忠州 薔薇山城 -1次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60) 成正鏞, 2001, 「4~5세기 百濟의 地方支配」, 『韓國古代史研究』 24, 100쪽; 金成南, 2003, 「신봉동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 시론」, 『湖西考古學』 8, 62~64쪽; 鈴木一有, 2012, 「淸州 新鳳洞 古墳群의 鐵器에 보이는 被葬者集團」, 『百濟學報』 8.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최근 다수 발굴되고 있는 진천, 충주, 청주 일대의 한성백제기 제철유적은 백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던 제철공방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칠금동유적과 송두리유적에서 발견된 하부에 목재 구조물을 설치한 새로운 형식의 제련로를 백제식 기술로 파악하는 연구⁶¹⁾도 제출되어 주목을 끈다. 그런데 석장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가 한성 중앙이 아닌 재지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유적의 운영 주체를 백제 중앙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⁶²⁾ 하지만 토기의 지역성이 정치적 예속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철 생산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파견되는 관리가 굳이 중앙의 토기 장인을 대동하고 올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과 같은 주요 자원의 생산·유통 구조를 기존의 국읍간 교역체계에 맡겨 놓은 상태로는 소국 단위 통합력을 깨트리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백제 지역에서 4세기부터 주조쟁이를 비롯한 철제 농공구의 급속한 보급이 이루어지는 현상⁶³⁾은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때 철기 출토 유적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끄는 유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용인 수지유적이다.⁶⁴⁾ 수지유적의 연대

61) 정경화, 2021,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지역 제철기지의 조성과정과 변화과정」, 『한국고고학보』 119.

62) 권오영, 2005, 「백제의 생산기술과 유통체계 이해를 위하여」, 『백제의 생산기술과 유통체계』, 한신대학교학술원, 6~7쪽 ; 이남규, 2005, 「백제 철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론」, 『백제의 생산기술과 유통체계』, 한신대학교학술원, 111쪽. 혹은 이 일대의 철기 생산 집단이 백제로부터 철을 매개로 한 공납지배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李南珪, 2006, 「百濟地域 鐵器 生産과 流通의 政治社會的 含意 -3~5世紀의 樣相을 中心으로-」, 『백제 생산기술과 유통의 정치사회적 함의』, 한신대학교학술원, 85~88쪽).

63) 李南珪, 2002, 「漢城百濟期 鐵器文化의 特性 -서울·경기지역의 農工具를 中心으로-」, 『百濟研究』 36.

는 대략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 정도로 추정되는데, 총 6기의 주거지가 확인된 소규모 취락 유적이다. 그런데 유적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철기가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구지표면에 세워진 채로 출토된 토기에서는 무려 22점에 달하는 각종 철기가 일괄로 매납된 채 출토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민에 의한 인위적 철거가 상정되는 2기의 주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4기의 주거지에서는 총 42점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말단 취락에 대한 이와 같은 대규모 철기 보급 현상은 백제 중앙의 영향력을 배제하고는 해석하기 어렵다.⁶⁵⁾ 또 영서지역에서도 4세기 중엽 이후 백제가 거점취락을 통해 철기 공급을 통제해 나간 구체적 정황이 엿보인다.⁶⁶⁾ 3세기 중엽 무렵에 이미 국읍에 主帥가 있어도 ‘不能善相制御’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⁶⁷⁾ 백제의 이러한 작업은 읍락 사회에 미치던 국읍의 영향력을 분쇄하며 기존 소국 단위의 결속력을 크게 약화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백제가 읍락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개별 읍락을 지방 행정의 단위로 편제해 나간 구체적 정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고구려는 396년에 백제로부터 58성 700촌을 빼앗았다고 한다. 여기서 당시 백제 북방에 58개나 되는 성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들 성이 기존의 국읍 중심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58성의 대상은 기존 국읍 이외에 읍락 단위까지 포함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64) 李南珪 외, 1998, 『龍仁 水枝 百濟 住居址』, 한신大學校博物館.

65) 백제 국가 형성기의 철제 농기구 출토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도 백제가 전략적으로 철기를 생산하여 각 취락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이회경, 2018, 「백제 국가 형성기의 철제 농기구 출토 양상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99).

66) 강세호, 2021, 「백제 한성기 거점취락 형성에 따른 영서지역 취락의 변화양상」, 『고고학』 20-2.

67) 『三國志』魏志 卷30, 韓條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다음으로 58성 700촌의 성:촌 비율을 계산해 보면 1:12 정도가 되는데, 성을 읍락 단위로 볼 경우[기존 국읍 포함] 1개 읍락 당 12개 정도의 촌이 부속한 것이 된다. 그런데 58성 중에는 백제가 행정적·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축성한 시설도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읍락:촌의 비율이 1:12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주저가 따른다.

여기서 『삼국지』에 의할 때 백제 북방에 7개 정도의 소국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국당 1개의 국읍과 2~4개의 읍락이 존재했다고 가정하면, 최종적으로 백제 북방의 읍락 수[기존 국읍 포함]는 총 25~30개 내외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읍락:촌의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대략 1:25 내외가 된다.

하나의 읍락에 25개 내외의 촌이 부속되어 있는 것이 조금 많은 수치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희준이 제시한 취락 분포 정형⁶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희준 안에 따르면 1개 읍락 안에는 읍락 중심 촌 외에 중규모의 촌이 1~2개 정도 더 존재했다. 그렇다면 대촌과 중촌⁶⁹⁾에 각각 많아야 10개 내외의 소촌⁷⁰⁾이 부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렇게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 또, 3~4세기 무렵 백제권 마을 규모를 보면, 최대 규모 취락이 100~200동 내외, 중규모 취락이 30동 이하, 소규모 취락이 10동 이하의 양상을 보인다.⁷¹⁾ 각각 이희준 안의 대촌, 중촌, 소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읍락의 호수를 계산해 보면, 읍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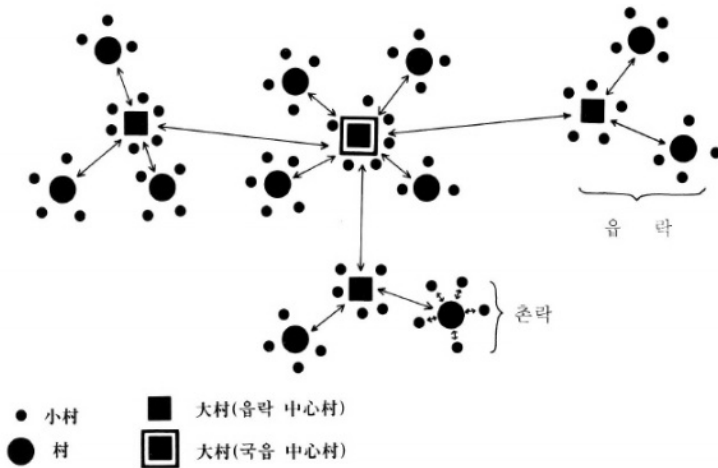
68) 李熙濬, 2000, 「삼한 소국 형성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 -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43, 126~130쪽.

69) 그림에는 촌으로 되어 있지만 광개토왕비의 촌과 구분하기 위해 중촌으로 표기하였다.

70) 광개토왕비의 700촌은 그 숫자로 보아 이희준 안의 소촌에 대응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1) 한지선·강동석, 2021, 「중부지역 원삼국시대~백제 취락과 인구변동」, 『중부고고학회 2021년 정기학술대회 인구변동의 고고학』, 중부고고학회.

중심촌 100~200호, 중촌 합계 50~60호, 소촌 합계 200~250호 정도가 나온다. 앞서 읍락의 평균 호수가 400~500호라고 한 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4세기 당시 백제의 읍락:촌의 비율은 1:25 내외였을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또, 광개토왕비의 성:촌 비율이 1:12인 것을 생각하면, 읍락당 2개 정도의 성이 존재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림 1: 취락 분포 정형 모식도」(이희준 안)

4세기 당시 백제가 개별 읍락 단위마다 2개 정도의 성을 설치했다면, 읍락사회 내부에 백제 중앙 권력이 꽤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다고 해도 좋다. 그들 성 중에는 행정적 치소로서 기능하는 성도 있었을 것이고, 군사적 목적으로 축성된 성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의 읍락에 두 개 이상의 행정 치소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군사적 목적의 성이 읍락당 최소 하나씩은 존재한 셈이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대규모 축성은 백제 중앙 권력의 매개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조사례가 늘고 있

는 한성기 백제 산성들은 주목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설성산성 등의 유구와 유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앙에서 지방관과 함께 일정 수의 군사를 과견하여 주둔하게 하면서 치안 유지와 수취 등을 담당하게 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⁷²⁾

이상에서 4세기 당시 백제의 행정력이 읍락 내부에 깊숙이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백제는 철제 농기구 보급 확대를 통한 농업 생산력 증대⁷³⁾도 함께 꾀함으로써 읍락 내부의 공동체적 사회관계를 해체해 나갔다. 철기 보급을 국가가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목제 농기구와 달리 제작 및 공급처가 제한되어 있는 철제 농기구의 소유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때 그 소유의 정도는 가호의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신분적 처지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주조쟁이나 鐵鎌 등은 광범위한 보급이 확인되지만, U자형구[삽날]⁷⁴⁾의 경우는 그 출토가 매우 제한적이다. 수지유적에서도 주조쟁이는 24점, 철검은 7점이 출토됐지만, U자형구는 단 1점밖에 출토되지 않았다. 신라 지역의 예를 봐도 U자형구는 황남대총

72) 徐榮一, 2005, 「漢城 百濟時代 山城과 地方統治」, 『文化史學』 24, 16~22쪽.

73) 원삼국시대에서 한성기로 넘어오면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수전 면적이 크게 늘고 쌀 재배 비중이 증가하였음이 최근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이희경, 2022,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전략의 특징과 채택 맥락」, 『한국고고학보』 123). 그리고 늘어난 생산량을 증명이라도 하듯 저장 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한지선·강동석, 2021, 앞의 논문, 169쪽).

74) U자형구의 경우 좌우폭에 비해 길이가 긴 형태가 보다 늦게 출현하는데, 이러한 종류는 길이가 짧은 형태에 비해 고도의 단조기술이 필요하고 흙에 대한 관찰력이 높다고 한다(都出比呂志, 1989, 『日本農耕社會の成立過程』, 岩波書店, 15쪽). 백제에서도 한성기에 들어서면서 원삼국시대에 비해 삽날의 길이가 길어지는데(이희경, 2018, 앞의 논문, 126쪽), 철기 제작 기술의 향상을 통한 생산력 증대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의 최상위 무덤에서만 제한적으로 출토된다고 한다.⁷⁵⁾ 이러한 농기구의 차등적 소유는 자연히 가호별 생산력의 차이로 이어져 계층분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4세기 당시 백제 농민층의 계층분화 양상은 아래의 『삼국사기』 기록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 D-① 溫祚王 33年(15) 春夏 大旱 民饑相食 盜賊大起 王撫安之
- D-② 溫祚王 37年(19) 夏四月 旱 至六月乃雨 漢水東北部落饑荒 亡入高句麗者一千餘戶 溟帶之間 空無居人
- D-③ 己婁王 32年(108) 春夏 旱 年饑民相食
- D-④ 比流王 28年(331) 春夏 大旱 草木枯 江水竭 至秋七月乃雨 年饑 人相食
- D-⑤ 近仇首王 8年(382) 春 不雨至六月 民饑 至有鬻子者 王出官穀贖之
- D-⑥ 毗有王 21年(447) 秋七月 旱 穀不熟 民饑 流入新羅者多

사료 D는 한성시대 백제에서 기근이 발생했을 때 民들이 대처한 방식을 『삼국사기』에서 뽑아본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근구수왕대 이전 기근 관련 기록에서는 백성들이 相食을 했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相食은 읍락 내의 계층분화 정도가 미약하여 부농층이 발생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자활책이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해 근구수왕대에 들어서는 이전과 달리 자식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나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러한 자식 매매는 계층분화가 진전되어 부농층이 등장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읍락 내의 계층분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식을 팔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

75) 李賢惠, 1998, 「4~5세기 新羅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159~162쪽.

문이다.

한편, 진사왕대에 15세 이상의 자를 징발하여 국가적 토목사업을 벌인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 E-① 溫祚王 41年(23) 二月 發漢水東北諸部落人年十五歲以上 修營慰禮城
- E-② 多婁王 29年(56) 春二月 王命東部 築牛谷城 以備鞬靺
- E-③ 責稽王 元年(286) 王徵發丁夫 葺慰禮城
- E-④ 辰斯王 2年(386) 春 發國內人年十五歲已上 設關防 自青木嶺北距八坤城 西至於海
- E-⑤ 腆支王 13年(417) 秋七月 徵東北二部人年十五已上 築沙口城 使兵官佐平解丘監役
- E-⑥ 蓋鹵王 21年(475) 於是 盡發國人 悉土築城 卽於其內作宮樓閣臺榭 無不壯麗 又取大石於郁里河 作槨以葬父骨 緣河樹堰 自蛇城之東 至崇山之北

사료 E는 한성시대 백제 力役 동원 관련 기록들을 『삼국사기』에서 추려본 것이다. 이 중 기년이 의심되는 온조왕대 기록을 제외하면 역역 동원에서 그 징발의 기준을 밝히기 시작하는 것이 진사왕대부터임을 알 수 있다. 늦어도 4세기 후반 무렵부터는 호구조사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4세기 후반 당시 백제 중앙 권력이 읍락 내부의 공동체적 관계를 해체함과 동시에 개별 家戶를 수취의 단위를 삼아가고 있던 역사적 정황을 감지할 수 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성원의 추가장을 전제로 하는 횡혈식 석실묘가 4세기 후반부터 백제 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도 4세기 후반 무렵이 되면 공동체적 사회 질서가 해체되고 기초 생산소비단위로서의 가족단위가 출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⁷⁶⁾

76) 朴淳發, 2001, 「4~5세기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의 몇 가지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24, 2001, 15쪽.

그런데 백제에서 5세기 말까지도 공동체적 관계에 기초한 역역 징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⁷⁷⁾ 전지왕과 동성왕대에 보이는 부에 공동체적 관계가 남아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제는 4세기에 들어 방위명 부를 편제했다. 이는 부체제에서와 같은 단위 정치체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세기 백제에서 공동체적 관계에 기초한 역역 동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에서 백제가 영역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시 백제는 철과 같은 주요 자원의 생산과 공급을 통제하여 읍락에 대한 국읍의 영향력을 분배하는 한편, 읍락 사회 내부에 중앙의 행정력을 깊숙이 침투시켜 나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철기 보급의 확대를 매개로 농업 생산력 증대를 이루어내었으며, 읍락 내에 존재하던 공동체적 관계도 해체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당시 백제의 지배체제가 재지세력을 매개로 이루어지던 간접지배에서 벗어나 직접지배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배체제의 변화는 정국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일원적 관등제의 확립과 왕권 중심 정치체제의 성립

근초고왕대 이후 백제는 지방에 대한 영역화 작업을 통해 재지세력의 힘을 약화시켜 갔는데, 이러한 작업은 자연스럽게 기존에 좌평을 수여받던 세력들의 독자성 약화로 연결되었다. 왜냐하면 좌평은 원래 솔계 이하 관등과는 달리 재지세력이 그들의 세력기반을 유지한 채 수여받은 칭호였기 때문이다.⁷⁸⁾ 따라서 지방에 대한 영역화 작

77) 김기홍, 1991, 『삼국 및 통일신라 세계의 연구』, 역사비평사, 96쪽.

업이 진행될수록 좌평을 수여받는 계층은 축소되어 갔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래 표를 통해 이러한 예측이 타당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1: 고이왕~전지왕대의 좌평」

왕대	좌평에 임명된 인물	임명 전 관직·관등	역할
고이왕	優壽(왕족) 優豆(왕족) 眞可 高壽 昆奴 惟己		
비류왕	優福(왕족) 眞義(優福 후임) 解仇		
근초고왕	眞淨		내치
근구수왕	眞高道		내치
진사왕	眞嘉謨	達率	군사활동
아신왕	洪(왕족) 眞武	左將(眞武)	군사활동(眞武)
전지왕	餘信(왕족) 解須 解丘		上佐平 餘信이 군국정사 총괄

위 표는 일단 전지왕대를 하한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동왕대의 상좌평 설치를 좌평제의 전개 과정에서 하나의 분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할란은 내신좌평, 병관좌평 등의 명칭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록에 나타나는 구체적 역할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좌평제가 초기부터 6좌평제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이왕대 우두의 경우는 비록 왕족이라는 명기는 없지만, 우수와 우복의 예로 보아 왕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왕족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면 위 표를 중심으로 좌평제 변화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78) 박기범, 2010, 「백제 초기 정치체제의 성립과정과 구조적 특질」, 『百濟學報』 4.

우선 고이왕대를 보면 좌평을 수여받은 인물이 왕족을 제외하고도 4명이나 됨을 알 수 있다. 고이왕대가 연맹왕국을 막 형성한 시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수의 좌평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수의 좌평이 존재하는 상황은 비류왕대까지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고이왕대에는 안 보이던 해씨가 새롭게 좌평으로 등장하고, 진씨가 우복을 대신하여 뒤늦게 좌평으로 등장하는 점은 좌평을 둘러싼 연맹왕국 내의 정치적 알력이 상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좌평호를 소지해야만 정국운영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관철시키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수의 좌평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좌평 수여를 둘러싸고 유력 세력들 사이에 알력이 존재하는 상황은 왕권 중심의 정국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연맹왕국 단계 정치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근초고왕대 이후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근초고왕에서 진사왕에 이르는 시기동안 좌평은 각 왕대에 1명씩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모두 진씨뿐으로, 왕족조차 찾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근초고왕대 이후 재지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한동안 진씨 이외에는 좌평을 수여받지 못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근초고왕대를 전후하여 기존의 소국 단위 질서가 해체되고 지방에 대한 영역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씨만이 예외적으로 좌평을 칭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진씨의 세력 기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지금으로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들이 백제 초기부터 유력 세력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 내에서 왕실을 제외한 가장 큰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근초고왕대에 이루어진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영역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진씨만은 어느

정도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다. 더구나 그들은 왕 비족이 되어⁷⁹⁾ 다른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데에도 앞장섰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정이 세력을 믿고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여 국민들의 미움을 샀다는 것⁸⁰⁾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지방에 대한 영역화 작업은 왕실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씨의 협조하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파악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진씨가 여전히 좌평을 칭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진씨가 독자적인 군사권까지 유지하지는 못했던 듯하다. 위 표에서 확인되듯이 근초고왕과 근구수왕 2대에 걸쳐 그들은 내치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⁸¹⁾ 대외전쟁은 왕과 태자 등이 주도하고 있다. 근초고왕대에 열병을 하면서 중앙을 뜻하는 황색으로 기치색을 통일⁸²⁾한 것도 당시에 국왕 휘하의 일원적 군사권이 확립된 것을 보여준다.⁸³⁾ 따라서 진씨에게 내치의

79) 李基白, 1959,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31~33쪽.

80)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年條 “春正月 祭天地神祇 拜眞淨爲朝廷佐平 淨王后親戚 性狠戾不仁 臨事苛細 恃勢自用 國人疾之”.

81) 근초고왕대의 경우는 정사를 위임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진정이 세력을 믿고 일을 제멋대로 처리하는 상황은 그가 국왕을 대신하여 내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82)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4年條 “冬十一月 大關於漢水南 旗幟皆用黃”.

83) 成周鐸·車勇杰, 1981, 「百濟儀式考」, 『百濟研究』 12, 14쪽 ; 李道學, 1995, 앞의 책, 251~253쪽. 한편, 근초고왕대의 황색 기치 사용을 ‘改正朔 易服色’ 관념의 발현으로 보는 견해(나용재, 2022, 「近肖古王 24년 황색 깃발 사용에 대한 검토」, 『東洋學』 87)가 최근에 제기되어 주목을 끈다. 당시 백제에서 그러한 관념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본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왕권이 군사 열병식에서 기치의 색을 통일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이다. 일원적 군사권의 확립 없이 이러한 강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권리를 내준 것은 일원적 군사권 확립에 대한 반대급부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백제왕들은 親征의 수행을 통해 왕권의 위상을 고양시키는데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초고왕대에 왕권 중심의 정치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에는, 진씨에게 정사를 위임한 것이 그들에게 정치 운영의 실권이 넘어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⁸⁴⁾ 하지만 근초고왕대에 왕권 중심의 정치운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기록상으로는 근구수왕대까지 진씨가 내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근초고왕대에 일원적 관등제가 성립됐다고 보고 있지만,⁸⁵⁾ 이 역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백제가 비류왕대까지 연맹왕국적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⁸⁶⁾을 생각하면, 근초고왕에서 근구수왕에 이르는 시기에 진씨가 내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왕권이 그들을 아직 완전히 제어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따라서 당시 좌평의 성격도 재지세력을 대상으로 수여되던 이전의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왕족과 진씨는 일종의 정치적 파트너 관계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당시 좌평에 임명된 진씨들이 술계 이하 관등을 수여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데서도 방증된다.

이와 같이 생각할 경우, 진씨 세력이 완전히 신료화되는 시점은 진사왕대로 보인다. 당시 진가모는 좌평에 임명되기 전에 달술을 먼저 제수받았다. 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처음 확인되는 술계 이하 관등 수여 사례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백제의 최고 유력

84) 盧重國, 1994, 「4~5世紀 百濟의 政治運營」, 『韓國古代史論叢』 6, 145~147쪽.

85) 盧重國, 1988, 앞의 책, 109쪽.

86) 박기범, 2010, 앞의 논문, 60~62쪽.

세력인 진씨인 점은 의미심장하다.⁸⁷⁾ 이는 재지세력들을 왕권 휘하의 일원적 관등제 아래 편제하는 작업이 백제 최고 귀족인 진씨에 대한 관등 수여로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진가모가 뒤에 좌평을 수여받았다고 해도 그것의 성격은 이전과 같은 것일 수 없었다. 즉, 마침내 좌평이 일원적 관등제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필자는 진사왕대에 왕권 중심 정치체제가 성립했다고 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진사왕대에 들어 가능했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진사왕의 즉위 사정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사왕은 침류왕의 동생으로, 태자 아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대신 즉위하였다고 한다.⁸⁸⁾ 이는 진사왕의 즉위가 정통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일본서기』에는 진사가 왕위를 찬탈한 것으로 되어있기까지 하다.⁸⁹⁾ 따라서 진사왕은 자신의 즉위에 대해 있을지도 모를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왕권 강화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가 진씨에게 정사를 위임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주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중국으로부터 ‘百濟王’에 책봉된 첫 사례가 진사왕이라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다. 근초고왕이 동진으로부터 받은 책봉호는 ‘鎮東將軍 領樂浪太守’로⁹⁰⁾ ‘백제왕’의 칭호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후 근구수왕과 침

87) 진가모의 경우 비슷한 시기 다른 진씨 인물들과 달리 왕과의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아 진씨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최유립, 2021, 「백제 술계 관등의 변천과정과 관직임명」, 『한국고대사연구』 103, 90~91쪽). 진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핵심적 지위에서 벗어나 있던 인물들부터 관등제 내에 포섭되어 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88)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辰斯王 卽位年條 “辰斯王 近仇首王之仲子 枕流之弟 爲人強勇聰惠 多智略 枕流之薨也 太子少 故叔父辰斯卽位”.

89) 『日本書紀』 卷9, 神功紀 65年條 “百濟枕流王薨 王子阿花年少 叔父辰斯奪立爲王”.

류왕에 대한 책봉은 확인되지 않으며, 진사왕 2년에 ‘使持節 都督 鎮東將軍 百濟王’이라는 책봉호가 동진으로부터 수여되는 것이 확인된다.⁹¹⁾ 진사왕 이전까지 중국 왕조로부터 정식 ‘백제왕’에 책봉되지 못한 것은 분명 대내적으로도 귀족 세력에게 권위를 내세우는데 한계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즉위 과정에까지 문제가 있던 진사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백제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동진의 책봉에서 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⁹²⁾ 결국 진사왕이 백제왕으로 책봉받는 것에 성공하자 백제 내에서 국왕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진씨가 일원적 관등제하에 편입된 배경에는 이러한 국왕 권위의 고양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진사왕대에 진가모가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두고 진사왕이 일원적 군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바라보기도 한다.⁹³⁾ 그리고 이어지는 아신왕대에는 관등 소유가 확인되지 않는 진무를 좌장으로 삼고 병마사를 위임하고 있어⁹⁴⁾ 왕권 중심 정치체제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인상도 받게 된다. 그러나 진가모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원적 관등제하에 편제된 국왕의 신료였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또,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등장하는 좌장이나 장군 중에 따로 관등이 표기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진무의 경우도 정치체제의 동요와 연결 짓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 생각한다.⁹⁵⁾

90) 『晉書』 卷9, 帝紀9, 簡文帝 咸安 2年條 “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鎮東將軍 領樂浪太守”.

91) 『晉書』 卷9, 帝紀9, 孝武帝 太元 11年條 “夏四月 以百濟王世子餘暉爲使持節 都督 鎮東將軍 百濟王”.

92)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大王>について」,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35~136쪽.

93) 강종원, 2002, 앞의 책, 140쪽.

94)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阿莘王 2年條 “拜真武爲左將 委以兵馬事 武王之親舅 沉毅有大略 時人服之”.

더욱이 아신왕대부터는 다시 왕족들이 좌평에 임명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친위체제 구축을 통해 진사왕대 성립한 왕권 중심 정치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왕실의 의도는 전지왕대에 이르러 왕제 여신을 상좌평에 임명함으로써⁹⁶⁾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⁹⁷⁾ 상좌평의 설치에 대해서는 왕권 약화의 징후로 보기도 하지만,⁹⁸⁾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그것의 설치를 통해 왕권이 초월적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보는 편⁹⁹⁾이 자연스럽다.

F 冬十一月丁亥朔甲午 遣津守連 詔百濟曰 …… 是日 聖明王 聞宣勅已 歷問三佐平內頭及諸臣曰 詔勅如是 當復何如 三佐平等答曰 …… 十二月 百濟聖明王 復以前詔 普示群臣曰 天皇詔勅如是 當復何如 上佐平沙宅己婁·中佐平木笏麻那·下佐平木尹貴·德率鼻利莫古·德率東城道天·德率木笏昧淳·德率國雖多·奈率燕比善那等 同議曰 …… 聖明王曰 群臣所議 甚稱寡人之心(『日本書紀』卷19, 欽明紀4年條)

-
- 95) 진사왕~아신왕대의 진씨가 큰 권력을 가진 유력 세력이고 국왕들이 제어하기 힘든 존재였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그들의 활동이 형식적으로나마 왕권 중심 정치체제의 제도적 틀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다.
- 96)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3, 腆支王 4年條 “春正月 拜餘信爲上佐平 委以軍國政事 上佐平之職 始於此 若今之冢宰”.
- 97) 연맹왕국 시기에도 왕족이 수석좌평의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들의 지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박기범, 2010, 앞의 논문, 60~62쪽). 한편, 문동석도 전지왕대 상좌평 설치를 왕권 중심 정치체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파악한 바 있다(문동석, 1996, 「4~5世紀 百濟 政治體制的 變動」, 『韓國古代史研究』 9, 214~218쪽).
- 98) 盧重國, 1988, 앞의 책, 141쪽.
- 99) 梁起錫, 1990,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83~84쪽; 김수태, 2003, 「古代國家 中央官署의 組織과 運營 — 백제를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2,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03~209쪽.

위 사료 F는 성왕대 백제 조정의 정책 결정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백제에 상좌평 이외에 중좌평과 하좌평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삼좌평으로 분화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전지왕대 상좌평 설치와 함께 분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¹⁰⁰⁾ 이때 좌평을 세 등급으로 나누고 상좌평에 왕족을 임명한 것은 좌평 권력의 분산을 꾀함과 동시에 왕족을 가장 상위에 둬으로써 귀족 세력의 집단적 의지 형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¹⁰¹⁾

위 기록에서 또 주목되는 점은 상·중·하의 삼좌평이 중심이 되어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왕에게 상주하면, 최종적으로 국왕이 그것을 승인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왕이 일반 신료들과 구분되어 정책 결정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성시대와 사비시대의 정치 지형에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 상좌평 설치 이후의 기본적인 정책 결정 방식이었다고 보아 좋다고 생각한다.

100) 상좌평 설치 1년 전에 3명의 좌평이 한꺼번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전 지왕이 좌평의 서열화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짐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중좌평·하좌평의 존재가 확인되는 이상 이들이 상좌평보다 늦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101) 물론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제도 운영에 부침은 있을 수 있다. 비유 왕대에 여신이 사망하자 해수가 상좌평을 이어받은 것이 그 예이다.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3年條 “冬十月, 上佐平餘信卒, 以解湏爲上佐平”.

V. 맺음말

이상에서 백제의 영역국가 전환 및 왕권 중심 정치체제 성립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에 제기된 일부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근초고왕대 무렵에 백제가 영역국가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백제는 방위명 5부를 설치하며 대규모 축성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별 읍락 단위에까지 지배력을 뻗쳐 나갔다. 백제가 읍락 단위까지 지배력을 미치고 있었음은 당시 성의 분포 밀도, 병력 동원체계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거의 분명하다. 그리고 백제는 이와 함께 철기 생산과 유통 과정을 독점하여 읍락에 대한 국읍의 영향력을 분쇄해 나갔으며,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 읍락 내의 공동체적 사회관계도 해체해 나갔다. 간접지배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중앙 정치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왕권 중심 정치체제가 성립하는 배경이 되었다. 연맹왕국 시기에 다수 확인되던 좌평 소유자는 근초고왕대에 들어서며 진씨만을 남겨두고 소멸한다. 이러한 현상은 백제가 영역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지수장층들이 가진 고유의 세력 기반이 해체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진씨만은 한동안 좌평의 지위를 유지한 채 내치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등 왕권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씨 세력도 진사왕대에 이르러 결국 일원적 관등제하에 편입되기에 이른다. 이는 진사왕이 동진으로부터 백제왕에 책봉되며 백제왕이 갖는 대내외적 권위가 한층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간 백제사 연구에서는 영역국가 형성과 왕권 중심 정치체제의 성립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배체제 전환과 중앙 정치체제 정비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맞지만, 국가 시스템의 전환 과정에는 여러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깊이 있게 다루

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점진적 전환 과정은 고구려나 신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현상이다.

한편, 한성시대 지배체제와 관련하여, 지방관 파견의 구체적 실태, 5부 밖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식, 담로제의 시행 시기와 대상 범위 등 본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중요한 주제들도 많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출현과 함께 상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투고일: 2022.11.11, 심사개시일: 2022.11.21. 게재확정일: 2022.12.09.]

【참고문헌】

- 강종원, 2002, 『4세기 백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 강중훈, 2000,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기흥, 1991, 『삼국 및 통일신라 세계의 연구』, 역사비평사.
- 金貞培, 1986,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高麗大學校 出版部.
- 金哲垞,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 宋義政·尹炯元, 2000, 『法泉里』I, 國立中央博物館.
- 王健群 著/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I 古代篇, 一潮閣.
- 李南珪 외, 1998, 『龍仁 水枝 百濟 住居址』, 한신대학교博物館.
- 李道學,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一志社.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李鎔彬, 2002, 『百濟 地方統治制度 研究』, 서경문화사.
- 李仁哲,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 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 李賢惠,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 정동준, 2013,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
- 車勇杰·李圭根, 2006, 『忠州 薔薇山城 -1次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 威舜燮·金在弘, 1995, 『淸堂洞』II, 국립중앙박물관.
- 都出比呂志, 1989, 『日本農耕社會の成立過程』, 岩波書店.
-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 姜鳳龍, 1997, 「百濟의 馬韓 併呑에 대한 新考察」, 『韓國上古史

學報』 26.

姜鳳龍, 1997, 「新羅 中古期の 州郡制와 地方官」, 『慶州史學』 16.

강세호, 2021, 「백제 한성기 거점취락 형성에 따른 영서지역 취락의 변화양상」, 『고고학』 20-2.

강종원, 2017, 「한성후기 백제 대외관계의 변화가 지방통치에 미친 영향」, 『역사와 담론』 81.

權五榮, 1988, 「4세기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 -東晋青磁의 流入經緯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18, 서울大 國史學科.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권오영, 2001, 「백제국(伯濟國)에서 백제(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 40.

권오영, 2005, 「백제의 생산기술과 유통체계 이해를 위하여」, 『백제의 생산기술과 유통체계』, 한신대학교학술원.

金起燮, 1998, 「百濟 前期의 部에 관한 試論」, 『百濟의 地方統治』, 학연문화사.

김성남, 2001, 「中部地方 3~4世紀 古墳群 細部編年」, 『百濟研究』 33.

金成南, 2003, 「신봉동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 시론」, 『湖西考古學』 8.

김수태, 1998,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馬韓史 研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김수태, 2003, 「古代國家 中央官署의 組織과 運營 -백제를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2,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金英心,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김영심, 2000, 「百濟史에서의 部와 部體制」, 『韓國古代史研究』 17.

金貞培, 1976,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韓國

- 史研究』 13.
- 金周成, 1992,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재편」, 『國史館論叢』 35.
- 나용재, 2021, 「한성도읍기 백제 금동관모의 성격과 지방통치」, 『한국고대사연구』 104.
- 나용재, 2022, 「近肖古王 24년 황색 깃발 사용에 대한 검토」, 『東洋學』 87.
- 盧重國, 1990, 「日支國에 대한 一考察」, 『百濟論叢』 2.
- 盧重國, 1994, 「4~5世紀 百濟의 政治運營」, 『韓國古代史論叢』 6.
- 문동석, 1996, 「4~5世紀 百濟 政治體制的 變動」, 『韓國古代史研究』 9.
- 文安植, 2003, 「백제의 마한 복속과 지방지배 방식의 변화」, 『韓國史研究』 120.
- 朴起範, 2009, 「百濟 聯盟王國의 政治構造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박기범, 2010, 「백제 초기 정치체제의 성립과정과 구조적 특징」, 『百濟學報』 4.
- 朴淳發, 2001, 「4~5세기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의 몇 가지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24.
- 朴淳發, 2007, 「墓制의 變遷으로 본 漢城期 百濟의 地方 編制 過程」, 『韓國古代史研究』 48.
- 박순발, 2013,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한성백제박물관.
- 박찬규, 2001, 「백제의 마한사회 병합과정 연구」, 『國史館論叢』 95.
- 朴賢淑,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徐榮一, 2005, 「漢城 百濟時代 山城과 地方統治」, 『文化史學』 24.

- 成正鏞, 2000, 「中西部 馬韓地域의 百濟領域化過程 研究」, 서울 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成正鏞, 2001, 「4~5세기 百濟의 地方支配」, 『韓國古代史研究』 24.
- 成正鏞, 2006, 「中西部地域 原三國時代 土器 樣相」, 『韓國考古學報』 60.
- 成周鐸車勇杰, 1981, 「百濟儀式考」, 『百濟研究』 12.
- 梁起錫, 1990,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양기석, 2000, 「百濟 初期의 部」, 『韓國古代史研究』 17.
- 鈴木一有, 2012, 「淸州 新鳳洞 古墳群의 鐵器에 보이는 被葬者集團」, 『百濟學報』 8.
- 俞元載, 1992, 「百濟 湯井城 研究」, 『百濟論叢』 3.
- 俞元載, 1997, 「百濟의 馬韓 征服과 支配方法」, 『百濟論叢』 6.
- 俞元載, 1998, 「百濟의 領域變化와 地方統治」, 『百濟의 地方統治』, 學研文化社.
- 李基白, 1959,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 李基白, 1978,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百濟研究』 9.
- 李南珪, 2002, 「漢城百濟期 鐵器文化의 特性 —서울경기지역의 農工具를 중심으로—」, 『百濟研究』 36.
- 이남규, 2005, 「백제 철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론」, 『백제의 생산기술과 유통체계』, 한신대학교학술원.
- 李南珪, 2006, 「百濟地域 鐵器 生産과 流通의 政治社會的 含意 —3~5世紀의 樣相을 中心으로—」, 『백제 생산기술과 유통의 정치사 회적 함의』, 한신대학교학술원.
- 李道學, 1990, 「漢城 後期の 百濟 王權과 支配體制的 整備」, 『百濟論叢』 2.
- 이도학, 1998, 「새로운 摸索을 위한 點檢, 日支國 研究의 現段階」,

『馬韓史 研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이문기, 2007,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의 정치제도와 군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이성준, 2022, 「한성기 지역묘제의 다양성과 백제의 사회통합 방식 연구 —우호적 합병의 요인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22.

李宇泰, 1993, 「百濟의 部體制 —新羅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百濟史의 比較研究』,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李鍾旭, 1976, 「百濟의 國家形成 —三國史記 百濟本紀을 中心으로—」, 『大丘史學』 11.

李賢惠, 1997, 「3세기 馬韓과 伯濟國」, 『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이현혜, 2014, 「백제 국가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둘러싼 중요 쟁점」,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박물관.

이희경, 2018, 「백제 국가 형성기의 철제 농기구 출토 양상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99.

이희경, 2022,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전략의 특징과 채택 맥락」, 『한국고고학보』 123.

李熙濬, 2000, 「삼한 소국 형성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 —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43.

임영진, 2019, 「삼국시대 마한사회 위세품의 의미와 성격」,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전덕재, 2012, 「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와 그 변천」, 『百濟文化』 47.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田祐植, 2011, 「百濟 '王權中心 貴族國家' 政治運營體制 研究」, 國民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정경화, 2021,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지역 제철기지의 조성

- 과 변화과정, 『한국고고학보』 119.
- 정동준, 2018,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 趙漢弼, 1984, 「初期百濟의 國家的 性格」,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朱甫暉, 2000, 「百濟初期史에서의 戰爭과 貴族의 出現 一部體制를 중심으로」, 『百濟史上的 戰爭』, 서경문화사.
- 陣三範, 1993, 「4-5世紀 百濟의 地方統治體制와 檐魯制」, 延世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下) —「三韓攷」 第3部—」, 『韓國學報』 3.
- 千寬宇, 1979,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 『東洋學』 9.
- 최범호, 2000, 「백제 온조왕 대의 部 설치 배경」, 『全北史學』 23.
- 최유림, 2021, 「백제 솔계 관등의 변천과정과 관직임명」, 『한국고대사연구』 103.
- 한지선·강동석, 2021, 「중부지역 원삼국시대~백제 취락과 인구변동」, 『중부고고학회 2021년 정기학술대회 인구변동의 고고학』, 중부고고학회.
- 홍승우, 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 增淵龍夫, 1970, 「春秋戰國時代の社會と國家」, 『岩波講座 世界歷史』 4, 岩波書店.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ition to the Territorial State and Monarchy of Baekje in the 4th Century

Park, Gi-bum

Baekje divided the whole country into five divisions around the time of King Geunchogo. These five divisions are called 5 bu. At that time, the northern boundary of Baekje was the Yeseong River, the eastern boundary was Chuncheon, and the southern boundary was Charyeong. In the process of dividing the 5 bu, many fortresses were built and the people moved, which became an opportunity for the central power to penetrate deeply and evenly throughout the 5 bu. The fact that Baekje's dominance was evenly spread over the 5 bu at that time is revealed in the change in the troop mobilization system. Baekje has been able to mobilize up to 30,000 troops from the reign of King Geunchogo, and the number of 30,000 can only be achieved by recruiting one man from almost all households incorporated in Baekje at the time.

In addition, Baekje monopolize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ronware, which resulted in crushing the influence of Gukeup on Euprak, and eventually the order within small states was dismantled. This was possible because Baekje directly took control of the iron mines near the Sobaek Mountains. In this way, Baekje strengthened its influence on Euprak society and organized each Euprak as a unit of local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iron tools naturally caused an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which caused class differentiation and the communal relationship within Euprak was

dismantled.

This series of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nto a territorial state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way the government was run, and eventual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monarchy system. Jwapyeong is a title given to local power figures with their own power base during the period of the Allied Kingdom. Therefore,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nto a territorial state, the class receiving Jwapyeong gradually decreased. As a result, when the era of King Geunchogo and King Geungusu arrived, only the Jin clan was given Jwapyeong. During this period, the Jin clan enjoyed a status comparable to that of the royal family, such as being given the right to internal affairs.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 Jin clan was also incorporated under the Gwandeung(Official Ranks) system when the reign of King Jinsa came.

Keywords: Baekje, Territorial state, King Geunchogo, Regional ruling system, Jwapyeong, King Jinsa